

# ‘유가사지론’ 연구 50년 결실 돌아봐

## 금강대 ‘유식’ 주제 국제학술대회 개최

불교를 설명하는 말 가운데 ‘마음의 종교’라는 표현이 있다. 마음의 학술적 분석에는 인식론적 접근이나 관념론적 설명이 따른다. 마음에 대한 불교적 이론 고찰은 유식사상이라 불리며 대승불교 교학의 한 분야로 주목받았다. 이런 가운데 세계 유식학 권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눈길을 끈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안성두)는 10월 13~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유가사지론’과 유가행사’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비판적 문헌학의 선구자로 세계 최고의 불교학자로 손꼽히는 람버트 슈미트하우젠 교수(독일 함부르크대)와 문헌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불교사상사를 감독적 서사 형태로 풀어낸 아라마키 노리토 시 교수(일본 교토, 코카여자대), 인도-티베트 밀교 사본 연구 권위자 하루나가 아이자스(독일 함부르크대) 등 4개국 14명 불교학자들이 14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람버트 슈미트하우젠 교수는 ‘선(善, kusala)과 불선(不善, akusala)’을 주제로 발표했다. 슈미트하우젠 교수는 ‘선’과 ‘불선’은 불교적 정신성과 윤리성의 핵심개념이라며, 능숙함과 능숙하지 않음, 선과 악, 바름과 그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랑스 커진스의 학설을 반박했다. 아라마키 노리토 시 교수는 주제 발표 ‘대승불교의 존재론적 철학’에서 붓다의 가르침에 숨겨진 심오한 의미가 세 가지 본질성과 비본질성의 철학으로 계승됐는지, 세간적

진리가 잠재의식의 철학으로 발달했는지, 궁극적 진리가 드러내 보이는 것에 그친 철학으로 발전했는지를 조명했다. 마틴 델하이 박사(독일, 함부르크대)는 ‘유가사지론’ 연구’를 통해 현존하는 <유가사지론> 관련 문헌 자료를 재검토 했다. 델하이 박사는 “80%이상의 산스크리트본 <유가사지론>이 편집된 형태로 활용 가능하다”며, 티베트본의 비판적 편집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인도 여래장사상 권위자인 미카엘 짐머만 교수(독일 함부르크대)는 ‘보살지’ 제품에 관해’를 발표했다. 짐머만 교수는 ‘제품’이 도덕적 규율을 단순히 수집한 것이라는 인식을 초월해, “편찬자의 의도가 대승의 도덕적 교의를 담은 경전과 관련된 것들을 혁신적인 구조와 형식으로 제시한 것”이라 주장했다.

초기선정문헌 권위자인 플로린 델레이아 교수(일본 국제불교대학원대학)는 ‘보살지의 명상 수행’을 통해 ‘보살지는 유가행 유식학과 전통의 어떤 대표적 사상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델레이아 교수는 슈미트하우젠 교수 등의 학설을 인용해, “보살지의 기본 철학이 ‘유명론(唯名論)’이며, 삼성설(三性說)의 태동에 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했다.

불교의 잘나름을 논리로 입증해 학계의 주목을 받았던 알렉산더 로스 교수(미국 버클리대)는 주제 발표 ‘수소성지(修所成地)와 그 수행’에 대한 소견’에서 수소성지가 어떻게 거룩한 다르마를 경정하고, 수

행도의 다른 단계에서 지침을 받았는가를 설명했다.

레오나르드 반데어 케입 교수(미국 하버드대)는 ‘자나미트라’의 <대승아비달마집론> 주석에 대한 소고’에서 티베트본과 중국본, 산스크리트본의 주석서들을 비교했다.

티베트의 마하무드라(大印) 전통 연구자 울리히 팀에 크라우 교수(금강대)는 ‘유식(唯心), 텍스트 부재’를 발표했다. 크라우 교수는 남부 티베트 탁보지방의 <다보전집>과 <유가사지론>을 낱말과 씨실의 관계로 설명했다.

세계적인 고대불교사본 연구자 마즈다 카즈노부 교수(일본 불교대)는 ‘해심밀경’ 산스크리트 사본 단편’에 관해 발표했다. 마즈다 교수는 네팔 카트만두 국립고문서실과 독일 튀르판 콜렉션에서 발견한 산스크리트 단편 사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당시 제작된 상당수의 유가경전에 <해심밀경> 5품의 내용이 수록됐다”고 주장했다.

유식사상과 심층심리학을 비교연구 중인 사쿠마 히데노리 교수(일본 츠크바대)는 ‘현장의 오성각별설, 인도에서 실제 찾을 수 있을까?’를 주제로 발표했다. 사쿠마 교수는 “오성각별설은 현장이 번역한 <불지경론>에 소개된 다섯 종성(種姓)의 체계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하루나가 아이자스 박사(독일 함부르크대)는 주제 발표 ‘유가행과 금강승’에서 유가행과 중관파의 관점에서 진언승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인문학프로젝트 일환



‘유식, 텍스트 부재’를 발표한 울리히 팀에 크라우 교수(금강대).

으로 개최됐다. 안성두 소장은 “세계적인 권위자들을 초빙해 <유가사지론>에 대한 지난 50여 년의 근대 불교학의 연구를 돌아보는 자리”라며, “이러한 담론이 한국 불교학계의 문헌학적·철학적·종교학적 문제의식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김진성 기자 yeam@buddhapia.com

### Tip 여기서 잠깐!

유식(唯識)은 “일체 만물이 오직 인간의 분별작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 낸 것이라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는 만법유식(萬法唯識)이란 말과 상통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유식설을 만들어 내고 발전시키고 계승하는 사람들을 유가사(瑜伽師)라고 칭한다. 미륵이 말하고 무척이 편찬했다는 <유가사지론>은 인도 유식학파의 기본문헌이다.

유식설을 만들어 내고 발전시키고 계승하는 사람들을 유가사(瑜伽師)라고 칭한다. 미륵이 말하고 무척이 편찬했다는 <유가사지론>은 인도 유식학파의 기본문헌이다.

유식설을 만들어 내고 발전시키고 계승하는 사람들을 유가사(瑜伽師)라고 칭한다. 미륵이 말하고 무척이 편찬했다는 <유가사지론>은 인도 유식학파의 기본문헌이다.

## “불교근대화 위해 노력한 대표적 스님”

### 월초문도회 ‘월초 큰스님과 근대 교육사업’ 학술회의

동국대학교의 전신 명진학교와 경기도 남양주 사학명문 광동학원을 설립한 월초 스님의 업적을 재조명한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월초문도회(문장 월은)는 10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월초 큰스님과 근대 교육사업’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월초 스님 열반 74주기를 기념한 이번 행사는 신용철 명예교수(경희대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한동민 학예연구사(수원역사박물관), 김광식 교수(부천대)가 발표했다.

신용철 교수는 “한국 불교의 근대화와 교종(敎宗)의 본질(本體), 불교의 공헌” 주제의 기조발제에서 월초 스님 시기의 시대적 사명감과 스님의 업적을 설명했다.

신 교수는 “스님은 무너져가는 조선왕조 말 혼란기와 일제강점기를 살면서 선각자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윤암 스님과의 일화를 소개했다.

불교사에 머물던 윤암 스님에게 월초 스님은 “종교를 들고 일본 놈들과 맞서 싸우는 것만이 독립은

아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무엇인가 하고 싶어도 글을 모르고 배운 것이 없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여기서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배워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분명히 펼쳐 일어날 수 있도록 계몽하는 것도 독립운동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월초 스님의 말에 윤암 스님은 독립운동을 미루고 불교사에 머물며 불교 교리를 배우고, 국민 계몽에 힘썼다. 3·1운동에 참가해 옥고를 치른 후에는, 상해임시정부에 참여하는 활발한 독립운동을 펼쳤다.

신용철 교수는 “월초 스님은 일제의 침입으로 야기된 혼란과 무기력 극복, 불교 근대화를 위해 노력한 대표적 스님”이라며, “1900년 국운의 안녕을 위해 수곡사를 중건하고, 아관파천으로 위기가 조조되자 전국 각도의 사찰을 통한 직제를 만드는 등 많은 업적을 세운 근대 불교의 선구자”라고 평가했다.

한동민 학예연구사는 주제발표 ‘한국근대불교사와 홍월초 스님’

에서 “월초 스님은 1927년 불교사 주지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그동안 받은 주지 월급을 불교사에 환원해 모범적인 주지 상을 정립했다”고 말했다. 한 학예연구사는 “월초 스님은 올바른 승려·스승의 모습을 보여준 선지식”이라고 강조했다.

김광식 교수는 주제발표 ‘홍월초의 꿈, 그의 교육관에 나타난 민족불교’를 통해 월초 스님의 교육관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월초 스님은 조선시대 산중불교를 민족불교로 되돌리겠다는 원력으로 교육불사에 정진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불교근대화를 추진한 불교연구회 회장 ▲명진학교(현 동국대학교) 교장(1906년) 및 이사장(1906년) ▲광동학원 설립 등 교육 분야에 독보적 업적을 세웠다.

한편 월초문도회는 이번 학술회의를 시작으로 전국 각도의 사찰을 통한 직제를 만드는 등 많은 업적을 세운 근대 불교의 선구자”라고 평가했다.

김진성 기자

## “수행사찰 요구·일본 잔재척결 의지로 ‘정화’”

### 금오선수행연구원 ‘금오 스님과 불교정화운동’ 발간

“정화운동은 종단 정쟁전이 아닌 수행사찰 확보 운동이다.”

비구·대척간 다툼으로 일그러진 정화운동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는 책이 출간됐다.

금오선수행연구원(원장 월서)이 금오 스님 열반 40주기를 맞아 10월 16일 발간한 <금오 스님과 불교정화운동>(2권)에 따르면, 정화운동은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침탈로 인한 조선불교의 몰락에 반발해 시작됐다. 책은 “국권침탈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불교정화운동은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적었다.

한일합병 당시 비구승들은 대처육식하며 부처님 계율을 어지럽히는 대처승들에 깊은 반감을 갖고 있었다. 일본 제국주의의 시퍼런 서슬 앞

에서 의지를 표출하기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랐음에도 용성 스님의 건백서 이후 금오 스님 등 몇몇 비구승들의 수행사찰 요구가 계속됐다.

비구승들의 잠재된 정화의지를 정화운동의 근간으로 서술한 책은 “한국불교정화운동은 수행사찰 요구와 이승만 정권의 일본잔재 척결 의지가 합쳐 일어난 운동”이라 주장했다.

같은 날, 세종문화회관에서는 금오선수행연구원 주최로 <금오 스님과 불교정화운동> 출판 기념 법회가 봉행됐다. 법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자승 스님(중앙종회의장), 혜자 스님(도선사 주지), 세민 스님(조계사 주지) 금오문도스님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10월 1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혜정 스님 등 금오문도스님들이 기념책을 지르고 있다.

지관 스님은 축사에서 “정화운동은 금오·동산·효봉·청담·자운 선사와 같은 대선지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금오 스님은 앉아야 할 때 앉고, 떠날 때 떠나고, 머물러야 할 때 머문 청정수행인”이라고 말했다. (02)919-0211 주동섭·김진성 기자

## 선·정토 특이·동질·일치성 살피니 ‘선정일치’ 경향

### 한국선학회 ‘선과 교학의 만남’ 추계학술대회

자력 수행(선)과 타력 수행(염불)이 만나는 곳은 어디일까? 불교계 각 종단에서 뚜렷한 입장 없이 대표 수행법으로 선과 염불이 사용되는 가운데, 선과 정토의 관계를 진단한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한국선학회(회장 김영두)가 ‘선과 교학의 만남’을 주제로 10월 10일

동국대에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법상 스님(동국대)은 ‘선과 정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스님은 선과 정토를 특이성, 동질성, 일치성으로 나눠 한국불교의 선정일치 경향을 정리했다.

이날 대회에는 최기표 교수(금강대)가 ‘한국의 선전통과 현대종’, 정

성준 연구교수(동국대 BK21)가 ‘유가행을 통한 선과 밀교의 소통 고찰’, 윤양호 교수(원광대)가 ‘점수와 돈수의 관점에서 본 현대미술’, 정은 스님(동국대)이 ‘능가경’의 선관 소고’, 김호규 연구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가 ‘규기 <금강반야경찬술>의 분과와 내용과 특징’을 발표했다.

주동섭·김진성 기자

## 문화재연감 2008 발간

문화재청(청장 이강우)은 2007년 동안 추진된 문화재청의 정책과 성과 등을 담은 <문화재연감 2008>을 발간했다.

연감에는 2007년도 문화재 지정·등록, 보수·정비 및 조사·연구 실적과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의 세계유산 등재, 문화유산 교육 및 1문화재 1지킴이 활동 등이 수록됐다. 주동섭 기자



#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양화사



양화사 건강원

권 자원봉사의 집 권

서금요법수지침술

▷ 전국불우 이웃 및 소년 소녀가장 「무료봉사」건강찾아주기 “자원봉사의 집” ◁

인간 생명의 존중과 복지사회구현을 실현하여 건강백세의 아름다운 동반자가 되기위한 전국불우이웃 “무료봉사” 건강찾아 드리기 “자원봉사의 집” 양화사입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근본이념으로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전국에 계시는 몸이 불편하신 불우이웃(생활수급자·생활보호대상자·소년소녀가장)분들에 대하여 건강을 찾아서 사회의 일원이 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양화사 “자원봉사의 집”입니다.

※ 전국에 거주 하시고 계시는 몸이 불편하신 불우 이웃분들에 대하여 관할지역 읍·면·동사무소의 “확인서”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여 주시면 최선의 노력으로 “무료봉사”하여 건강을 찾아 드리는 일에 성심을 다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성인성,부인성 질환)(아토피,피부질환)(신경통,관절질환)(디스크,혈압질환)(불치,난치성질환)(희귀성질환) 등에 대하여 “서금요법” “수지대체요법” 등으로 “무료건강상담”하여 드립니다.

(서금요법, 수지대체요법, 자연치유법, 체질개선)(수지기능식품, 자연식품, 건강식품)등으로 “무료봉사”하여 건강을 찾으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서금요법·수지대체요법·수지침·무료출장교육하여 드립니다. ●

※ 전국불교종단, 사찰, 불교대학, 불교단체등에 대하여서는 “무료출장교육”하여 드립니다.

※ 서금요법, 수지침은 건강관리와 “수지침자원봉사” 고령화시대에 가장효과적인 대체의학이며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 “자원봉사”에 참여 하실수가 있습니다.

※ 서금요법, 수지대체요법, 수지침, 전국각종단체등 “무료출장교육”신청상담을 받고있습니다.

서금요법·고려수지침술요법학회 남수원지회, 분회 (지회장: 한상기 / 분회장: 천광)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67-4번지 201호

※ 문의 및 상담전화 : 031)251-2213, 254-2213 / 휴대폰 010-3013-2213 / 팩스 031)258-2213 ※ 불자들의 정성이 어둡고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에 밝은 희망의 등불이 됩니다.

※ 후원계좌 : 농협 201786-51-050820 / 국민은행 877001-01-362102 / 제일은행 604-20-378236 / 우체국 104323-01-001733(예금주: 한국근본불교조계종양화사)

※ 불자들의 후원금과 불사금 및 수익금 전액에 대하여서는 전국불우이웃 “무료봉사” 건강찾아주기 “자원봉사의 집”에서 포교 및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 근본불교조계종 양화사(자원봉사의 집) 주지 천광 합장

## 종무원 구함

참사람 수행도량 <백운암 상도선원>에서 종무원을 모집합니다.

- 업무 : ·종무행정(재무) ·컴퓨터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등)
- 연령 : 40세이하
- 구비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사진
- 급여 : 추후 결정
- 기타 : 출퇴근 가능자, 4대 보험 적용 1차 서류전형 후 개별 연락

※ 접수 및 문의는 이메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sangdo3391@naver.com

대한불교조계종 백운암 상도선원

서울 동작구 상도동 79-60 02)815-0198